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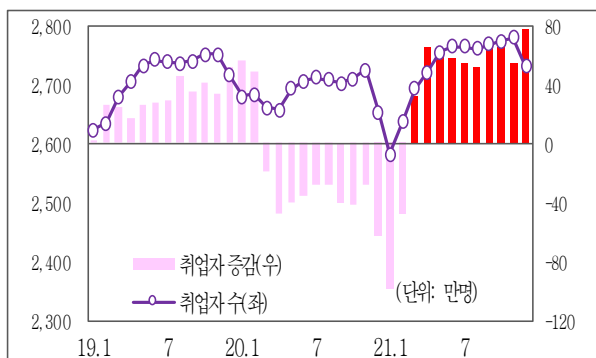
보도 일시	2021. 1. 12.(월) 09:00	배포 일시	2022. 1. 12.(수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이차웅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순 (tskim07@korea.kr)

'21.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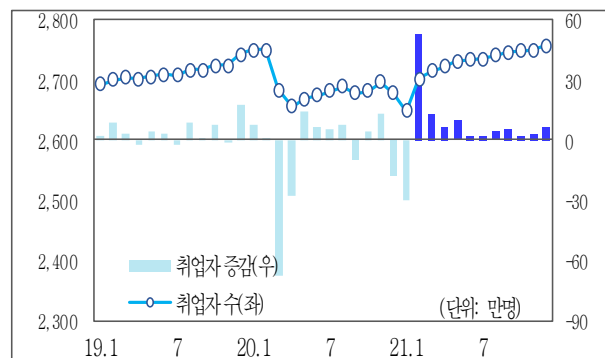
주요 내용 (요약)

- '21.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('20.2) 대비 100.2% 회복
- 12월 취업자수는 '2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(+77.3만명)하였으며 연간으로는 '20년 감소폭(△21.8만명)을 크게 상회(+36.9만명)
- '21.1월 저점(△102.3만명) 이후 11개월간('21.2~12월) +108.1만명 증가
- ※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,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

취업자 및 증감 추이(전년동월비)



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(전월비)



- 세부 지표별로 보면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민간 일자리, 청년층, 상용직·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시장 회복
- ❶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가 고용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제조업도 고용 개선에 기여

-
- ② 의료·복지·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·공공행정 등 공공·준공공부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며 민간 일자리 보완
 - ③ 청년층이 지표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 연령대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간 고용률도 증가
 - 청년층은 인구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민간일 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고용률·실업률 등도 개선
 - ④ 고용의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상용직·전일제 중심의 뚜렷한 회복세 지속
 -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이 3개월 연속 +60만명 이상 증가하고, 연간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(71.7%)은 역대 최고 수준
 - 취업시간별로도 12월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~17시간을 크게 상회
 - ⑤ 숙박음식업,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피해가 컸던 부문에서 일부 회복 조짐도 관찰되고 있으나 이들 누적 피해에 따른 어려움은 지속
-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·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음
-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(12.18~) 등에 따른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 집중
 - ② 청년·여성 등 취약 부문·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
 -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, ‘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’ 이행 등 중층적 고용·사회안전망도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
 - ④ 그간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·강화되도록 규제혁신, 창업지원,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
 - ⑤ 탄소중립, 신산업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‘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’ 본격 이행(41개사업, 1.0조원)
-

총괄

- 12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+77.3만명 늘어나며 9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

*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5)61.9 (6)58.2 (7)54.2 (8)51.8 (9)67.1 (10)65.2 (11)55.3 (12)77.3

- 전월대비 취업자수(계절조정)는 +6.3만명 증가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1.6)1.8 (7)2.0 (8)4.8 (9)5.5 (10)1.8 (11)3.1 (12)6.3

- 고용률·경활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

*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21.6)0.9 (7)0.8 (8)0.8 (9)1.0 (10)1.0 (11)0.8 (12)1.3

* 경활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21.6)0.5 (7)0.3 (8)0.4 (9)0.5 (10)0.5 (11)0.3 (12)1.0

- 실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률 하락

* 실업자(만명) : ('21.6)109.3 (7)92.0 (8)74.4 (9)75.6 (10)78.8 (11)73.4 (12)97.9

-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△21.8 (8)△12.0 (9)△24.4 (10)△24.1 (11)△23.3 (12)△15.6

* 실업률(%) : ('21.6)3.8 (7)3.2 (8)2.6 (9)2.7 (10)2.8 (11)2.6 (12)3.5<전년비 △0.6%p>

업종별 고용

- 제조업 고용은 2개월 연속, 서비스업은 10개월 연속 증가

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7)0.6 (8)△7.6 (9)△3.7 (10)△1.3 (11)5.1 (12)3.7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 44.0 (8)43.6 (9)63.3 (10)59.1 (11)45.8 (12)66.0

-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, 보건복지업 중심 +66.0만명 증가

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 5.5 (9) 5.9 (10) 6.4 (11) 8.7 (12) 9.2

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 7.5 (9) 9.7 (10) 10.3 (11) 10.6 (12) 8.2

*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10.7 (9) 16.3 (10) 16.3 (11) 14.8 (12) 12.7

*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 4.7 (9)△0.1 (10)△3.3 (11)△8.1 (12) △5.6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24.3 (9) 28.0 (10) 30.0 (11) 27.9 (12) 17.4

-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취업자 증가세 지속

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 1.2 (8) 3.7 (9)2.2 (10)2.0 (11)3.1 (12)3.5

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9.2 (8) 12.3 (9)5.7 (10)5.2 (11)1.6 (12)4.0

연령 · 지위 · 취업시간별 고용

□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

- * '21.9→10→11→12월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청년) 3.2 → 2.8 → 2.7→3.8
(30대) 1.3 → 1.1 → 0.4 → 1.3 (40대) 0.8 → 0.9 → 0.2 → 0.8
(50대) 1.4 → 1.4 → 1.6 → 2.3 (60세 이상) 0.7 → 0.3 → 0.6 → 0.4 → 0.3

※ 연령별로 인구 증감 편차가 커 취업자수보다 고용률(인구대비 취업자수)로 고용상황 평가 필요

□ 임금 근로자(+ 69.8만명), 비임금 근로자(+ 7.5만명) 모두 증가

- * '21.11→12월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
(상용직) 61.1 → 65.2 (임시직) 10.6 → 11.9 (일용직) △17.5 → △7.4
(고용有 자영업자) △0.4 → 5.3 (고용無 자영업자) 4.2→ 3.6 (무급) △2.7 → △1.3

□ 일시휴직자 감소(△36.7만명), 단시간(1~17시간) 근로자는 + 11.0만명 증가, 전일제(주당 36시간 이상) 근로자는 + 92.8만명 증가

- * 일시휴직자(만명) : ('21.7)50.6 (8)62.5 (9)39.4 (10)37.5 (11)35.2 (12)37.8
-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△17.9 (8)△22.1 (9)△39.5 (10)△12.2 (11)△12.2 (12)△36.7
* 취업시간별(전년비, 만명) : (1~17시간)11.0 (18~35시간)10.2 (36시간 이상)92.8

청년(15~29세) 고용

□ 청년층 취업자수는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

- *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18.4 (8)14.3 (9)21.9 (10)18.0 (11)16.8 (12)26.6
* 청년층 인구(전년비, 만명) : ('21.7)△13.7 (8)△14.4 (9)△14.4 (10)△14.8 (11)△15.0 (12)△16.0

○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·확장실업률은 하락

- * 청년 고용률('20.12→'21.12, %) : 41.3 → 45.1 <+3.8%p>
* 청년 실업률('20.12→'21.12, %) : 8.1 → 5.7 <△2.4%p>
청년 확장실업률('20.12→'21.12, %) : 26.0 → 19.6 <△6.4%p>

○ 청년 비경활인구는 취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

- * 청년 비경활인구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9)△22.3 (10)△22.0 (11)△21.6 (12)△34.3

총괄

□ '21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36.9만명 증가

*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16)23.1 ('17)31.6 ('18)9.7 ('19)30.1 ('20)△21.8 ('21)36.9

○ 고용률 +0.4%p, 경합률 +0.3%p 상승, 실업률은 △0.3%p 하락

*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16)0.1 ('17)0.2 ('18)△0.1 ('19)0.2 ('20)△0.8 ('21) 0.4

* 경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16)0.1 ('17)0.3 ('18)△0.1 ('19)0.2 ('20)△0.8 ('21) 0.3

* 실업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16)0.1 ('17)0.0 ('18) 0.1 ('19)0.0 ('20) 0.2 ('21)△0.3

업종·연령·지위별 고용

□ 제조업은 △0.8만명 감소, 서비스업은 +29.2만명, 농림·건설업은 +1.3만명 증가

○ 숙박·음식(△4.7만명), 도·소매(△15.0만명), 예술·스포츠·여가(△2.9만명), 기타 개인서비스(△5.5만명) 등 대면 비중 높은 서비스업은 감소

○ 정보통신(+5.4만명), 전문·과학기술(+5.5만명), 운수·창고(+10.3만명) 등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, 보건복지업(+19.8만명) 등은 증가

□ 전 연령대의 연간 고용률은 증가

* '21년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전체)0.4 (청년)2.0 (30대)0.02 (40대)0.2
(50대)0.8 (60세 이상) 0.5

□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·임시직 근로자는 증가, 일용직은 감소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,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

* '21년 지위별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상용직)36.6 (임시직)15.2 (일용직)△9.6
(고용원 있는 자영업)△6.5 (고용원 없는 자영업)4.7 (무급가족종사자)△3.5

청년(15~29세) 고용

□ 청년층 취업자수는 '21.3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간 +11.5만명 증가

* 청년층 취업자수(전년비, 만명) : ('17)△0.1 ('18)△0.3 ('19)4.1 ('20)△18.3 ('21)11.5

○ 청년층 실업률(△1.2%p)·확장실업률(△2.0%p) 하락, 비경합인구 감소(△21.1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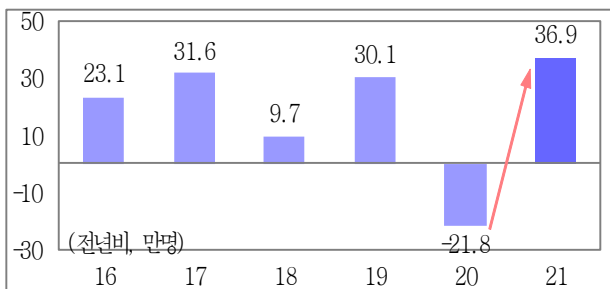
3

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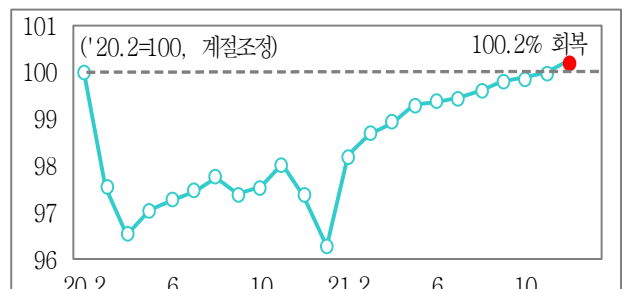
①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하며 연간 +36.9만명 증가하고 코로나19 이전 고점('20.2) 대비 100.2% 회복

-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는 '2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(+77.3만명)
- 계절조정 취업자는 '21.2~12월간 +108.1만명 증가하여 위기 전 수준 상회
- 12월 15~64세 고용률(67.4%, 계절조정)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연간으로는 +0.6%p 상승하였고, '21년 실업률(3.7%)도 '17년 이후 최저

연간 취업자수 증감



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



※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*이었으며 캐나다,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**한 국가 중 하나

* '20년 취업자 증감률(%) : (미국)△6.2 (캐나다)△5.2 (독일)△1.3 (한국)△0.8 (네덜란드)△0.1

** 주요국 계절조정 취업자수('20.2 =100 대비) : (한국, 12월)100.2 (미국, 12월)98.3 (캐나다, 12월)101.3 (일본, 11월)98.3 (독일, 11월)99.3 (네덜란드, 11월)101.7 (호주, 11월)10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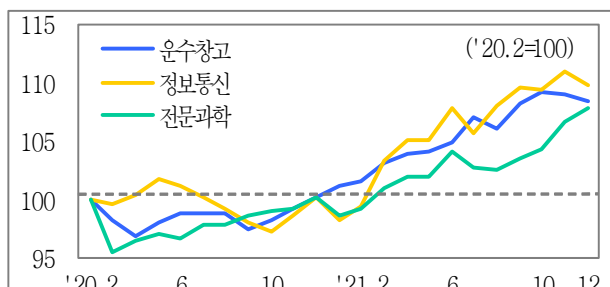
②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가 고용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제조업도 고용 개선에 기여

- 전문·과학기술, 정보통신, 운수창고 등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고용이 큰 폭 증가세를 지속하며 연간 취업자 증가의 57.7%(+21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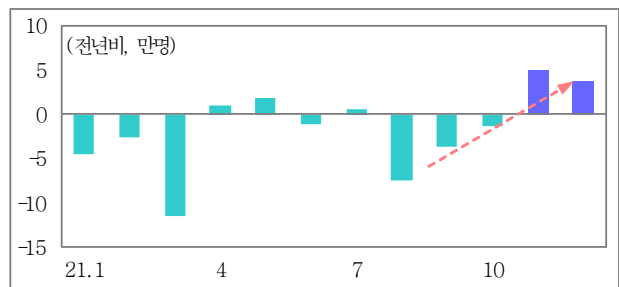
* 전문과학+정보통신+운수창고업 증감(전년비, 만명)

: ('21.3)16.8 (4)21.2 (5)17.7 (6)23.3 (7)22.4 (8)23.7 (9)31.9 (10)32.9 (11)34.0 (12)30.0

- 제조업은 반도체·의약품 등 신산업 수출증가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
비대면·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



제조업 고용 추이



③ 보건복지 등 공공·준공공 부문은 최근 들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

○ 보건복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공공행정은 작년 기저효과(추경 일자리 사업) 등으로 9월 이후 감소하여 도합 +11.8만명 증가(전체 취업자 증가의 15.3%)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23.7 (8)24.3 (9)28.0 (10)30.0 (11)27.9 (12)17.4

*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7) 9.1 (8)4.7 (9)△0.1 (10)△3.3 (11)△8.1 (12)△5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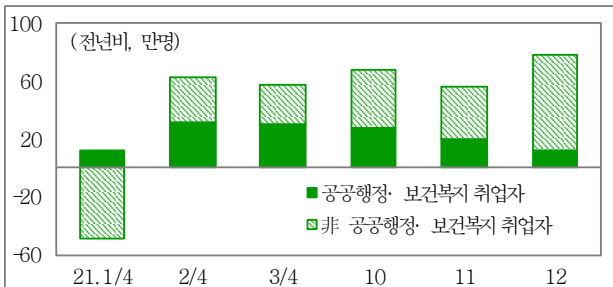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보건복지·공공행정 취업자 증가는 의료·복지·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상용직 일자리가 대부분*이며 연간으로도 상용직** 중심 증가

*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대부분 임시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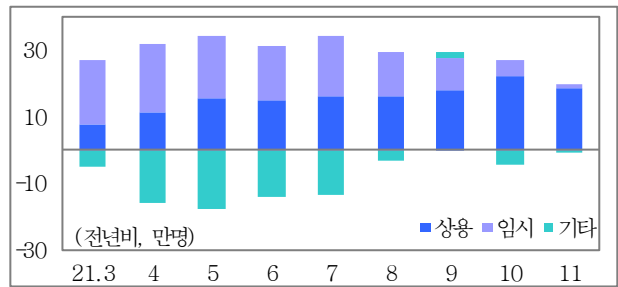
** 보건복지+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29.0 (9)27.9 (10)26.7 (11)19.8 (12)11.8

- 보건복지+공공행정 상용직 근로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15.8 (9)17.7 (10)21.9 (11)18.7

공공행정·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기여도



공공행정+보건복지 지위별 증감



④ 청년층이 지표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 연령대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간 고용률도 증가

* '20→'21년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청년) △1.3 → 2.0 (30대) △0.7 → 0.02 (40대) △1.3 → 0.2 (50대) △1.1 → 0.8 (60세 이상) 0.9 → 0.5

○ 청년층 고용률, 취업자수가 10개월 연속 +2%p, +10만명 이상 증가

○ 30대는 인구 감소(12월 △12.8만명)를 감안한 실질 취업자수*(+8.6만명)가 큰 폭 증가하며 12월 고용률 상승폭(+1.3%p)이 연중 가장 높은 수준** 기록

* 실질 취업자수 증감= 취업자수 증감 - 자연증감(인구증감 × 중기<'17~'19년> 고용률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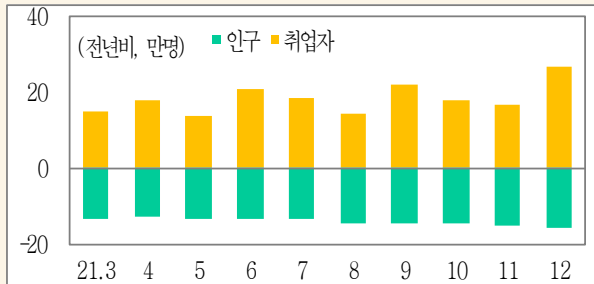
*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21.8)0.3 (9)1.3 (10)1.1 (11)0.4 (12)1.3

- 연간으로는 30대 고용률은 소폭 증가, 40대 증가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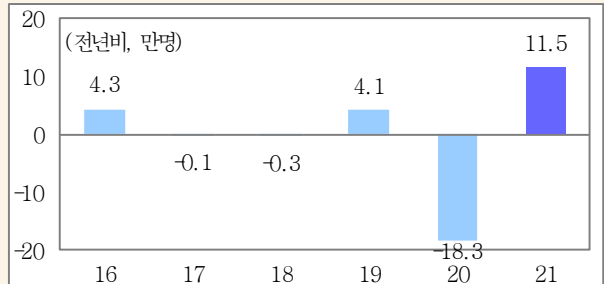
※ 청년층 고용 상황

- ① 큰 폭의 인구 감소('21년 △14.1만명)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
- '21.12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(+ 26.6만명)은 '00.3월 이후 최대이며,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(+ 11.5만명)은 '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

청년층 인구 및 취업자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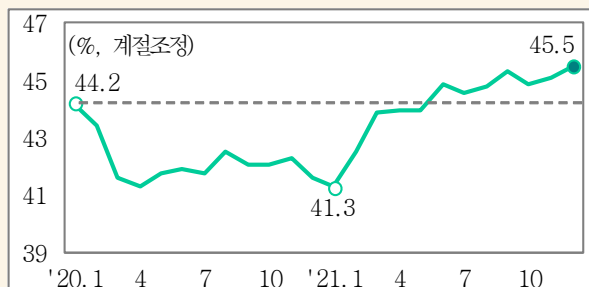


청년층 연간 취업자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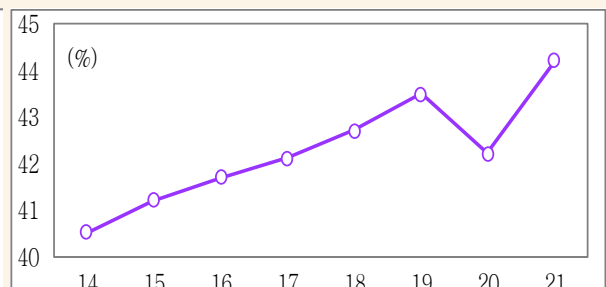


- ② 고용률(45.5%, 계절조정)은 '05.3월 이후, 연간 고용률(44.2%)은 '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

청년층 계절조정 고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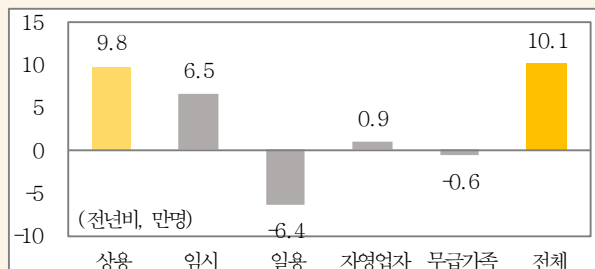


청년층 연도별 고용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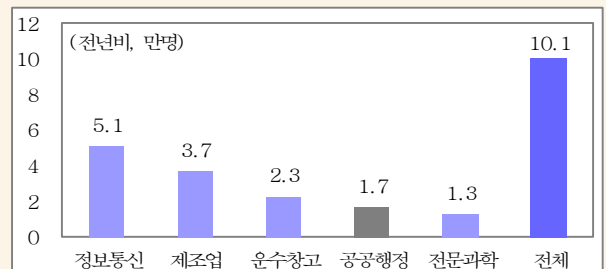


- ③ 기업의 양질 일자리 창출과 '청년희망 ON 프로젝트', 'K-디지털 트레이닝' 등 정책 지원으로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·제조업 상용직 중심 증가

청년 지위별 증감('21.1~11)



청년 산업별 증감('21.1~11)



- ④ 청년층 비경활인구, 쉬었음 인구가 감소하고 확장실업률도 큰 폭 하락

* '21.11→12월(전년비) : (비경활)△21.6→△34.3만명 (쉬었음)△3.4→△7.6만명 (확장실업률)△4.8→△6.4%p

⑤ 고용의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상용직·전일제 중심의 뚜렷한 회복세가 지속

-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이 3개월 연속 +60만명 이상 증가하고, 연간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(71.7%)은 역대 최고 수준

* 상용직 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8)32.4 (9)51.5 (10)61.5 (11)61.1 (12)65.2

- 임시직은 '21.3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며 연간 +15.2만명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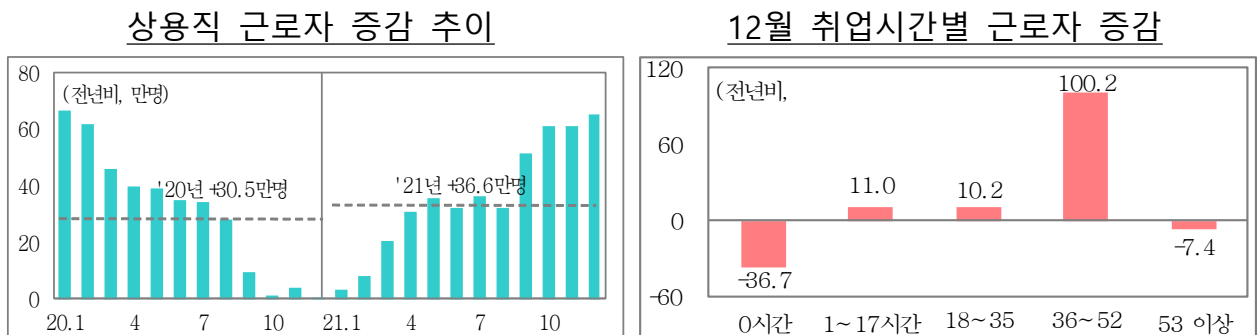
* '20→'21년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상용)30.5→36.6 (임시)△31.3→15.2

- 취업시간별로는 12월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가 +92.8만명 증가하며 1~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증가폭(+11.0만명)을 크게 상회

* 취업시간별(전년비, 만명) : (1~17시간)11.0 (18~35시간)10.2 (36시간 이상)92.8

- 일시휴직자(37.8만명)는 감소(△36.7만명)하며 '19년(40.7만명)과 유사한 수준

※ 연간 취업시간별 근로자는 8, 10월 대체 공휴일 영향 포함 → [통계 해석·비교시 유의](#)



⑥ 숙박음식업,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방역위기 피해가 컸던 부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회복되는 조짐도 관찰

- 1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,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전년대비 증가 전환하였으며 도소매업은 감소폭 축소

* '21.11→12월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숙박음식)△8.6→6.6 (도소매)△12.3→△8.0 (고용원 있는 자영업)△0.4→5.3

※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며 37개월만에 증가

- 다만, 이들 업종·계층의 누적된 피해로 연간 취업자수는 상당폭 감소

* '21년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숙박음식)△4.7 (도소매)△15.0 (고용有 자영업)△6.5

□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·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음

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(12.18~) 등에 따른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 집중

* 6.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(방역지원금, 손실보상 등), 1% 초저금리자금 융자, 공과금·사회보험료 납부유예('21.12→'22.3월) 등

② 청년·여성 등 취약 부문·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

- '청년희망ON' 시즌2의 조속한 시행, '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' 참여기업 지속 확대 등 청년 채용 확대 및 직무훈련 집중 제공
- 온종일 돌봄 확대,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지원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지원 사업 신속 집행
- '22.1월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코로나 일자리 취약 계층 집중 지원W

③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* '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' 이행 등 중층적 고용·사회안전망도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

*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(1회 50만원), 일경험 지원 강화(2.5만명) 등

④ 그간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·강화되도록 규제혁신, 창업지원,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

* 115.5조원 기업투자 프로젝트,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(33.1조원) 등

⑤ 탄소중립, 신산업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'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' 본격 이행(41개사업, 1.0조원)

* 사업재편·전환과 노동자의 직무전환·전직지원 등을 연계하고 '노동전환지원법' 제정 지원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이차웅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순 (tskim07@korea.kr)
<공동>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 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 유병현 (a3338@korea.kr)

① (총괄) 취업자 증가,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

- 10개월 연속 고용률(15~64세) 상승(67.3%, +2.0%p) 및 취업자수(15세 이상, 2,729.8만명, +77.3만명) 증가, 계절조정 취업자수 11개월 연속 증가

*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58.2 (7) 54.2 (8) 51.8 (9) 67.1 (10) 65.2 (11) 55.3 **(12) 77.3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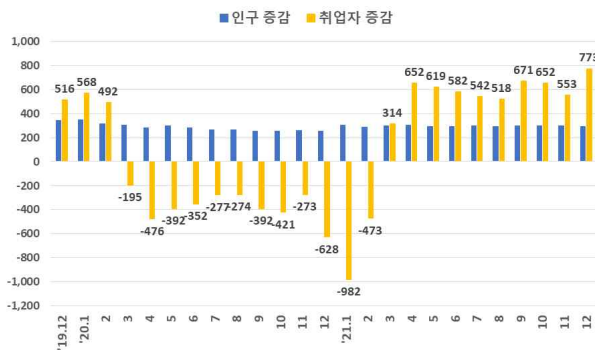
* 계절조정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1.6) 1.8 (7) 2.0 (8) 4.8 (9) 5.5 (10) 1.8 (11) 3.1 **(12) 6.3**

- 실업자 감소(97.9만명, -15.6만명) 및 실업률 하락(3.5%, -0.6%p)
비경활인구 감소(1,692.9만명, -32.7만명)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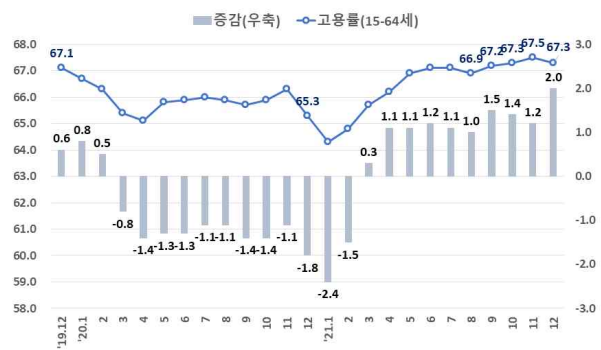
* 실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-13.6 (7) -21.8 (8) -12.0 (9) -24.4 (10) -24.1 (11) -23.3 **(12) -15.6**

* 비경활인구 증감(만명): ('21.6) -15.4 (7) -3.0 (8) -10.6 (9) -13.2 (10) -11.6 (11) -2.3 **(12) -32.7**

< 인구 및 취업자 증감(천명) >



< 고용률(15~64세) 및 증감(% , %p) >



② (연령·성) 청년 중심(고용률 +3.8%p, 취업자 +26.6만명 증가) 고용 회복
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(50대, 60세 이상 고용률 12월기준 역대 최고)

- (청년) 인구 감소에도 10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(+26.6만명), 고용률 상승(+3.8%p)

* 고용률 증감(%p, 11월→12월): (15~29세) 2.7 → **3.8** (20~24세) 2.2 → **4.4** (25~29세) 2.9 → **3.6**

* 청년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20.9 (7) 18.4 (8) 14.3 (9) 21.9 (10) 18.0 (11) 16.8 **(12) 26.6**

↳ 20~24세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7.7 (7) 6.7 (8) 3.2 (9) 8.8 (10) 6.9 (11) 3.3 **(12) 9.3**

↳ 25~29세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10.9 (7) 10.0 (8) 10.5 (9) 11.4 (10) 9.9 (11) 12.4 **(12) 14.7**

- (30~50대) 40대는 취업자 증가 전환(고용률 9개월 연속 상승), 50대 취업자 증가폭 확대(10개월 연속 증가), 30대 취업자 감소 지속(고용률은 +1.3%p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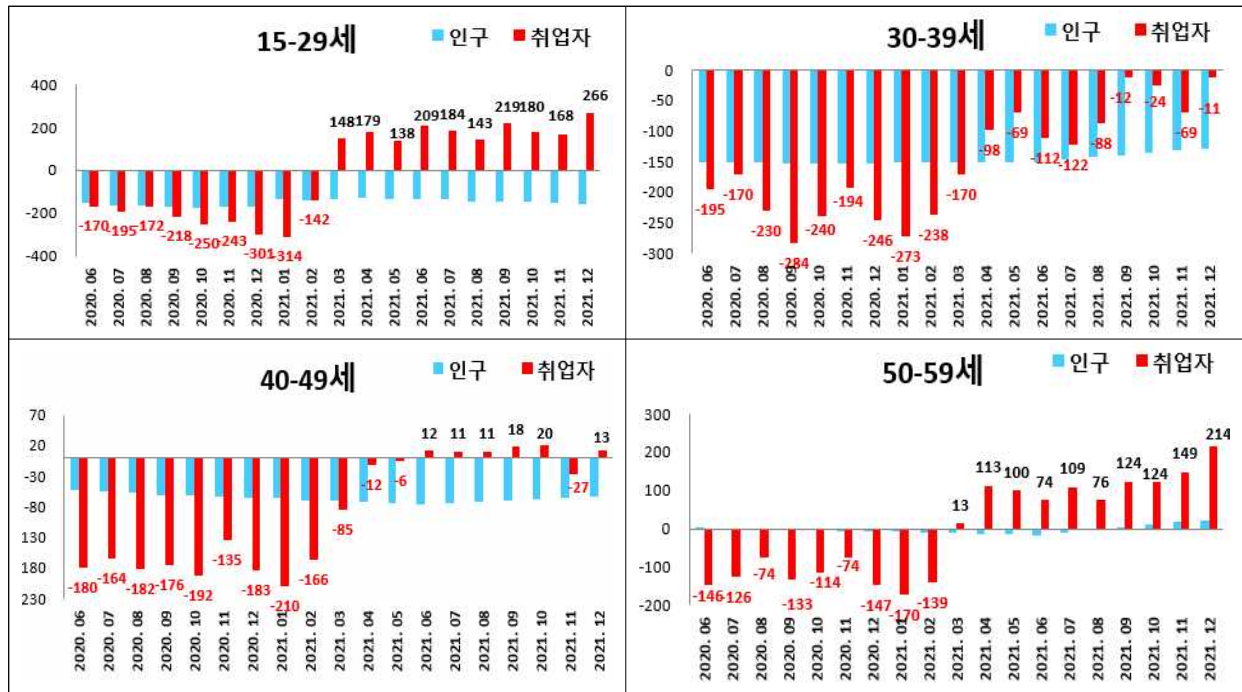
* 고용률 증감(%p, 11월→12월): (30대) 0.4 → **1.3** (40대) 0.2 → **0.8** (50대) 1.6 → **2.3**

* 30대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-11.2 (7) -12.2 (8) -8.8 (9) -1.2 (10) -2.4 (11) -6.9 **(12) -1.1**

* 40대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1.2 (7) 1.1 (8) 1.1 (9) 1.8 (10) 2.0 (11) -2.7 **(12) 1.3**

* 50대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7.4 (7) 10.9 (8) 7.6 (9) 12.4 (10) 12.4 (11) 14.9 **(12) 21.4**

<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(천명) >



○ (60세이상) 취업자 11개월 연속 증가, 고용률 10개월 연속 상승(40.7%, +0.3%p)

* 60세이상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39.9 (7) 36.1 (8) 37.7 (9) 32.3 (10) 35.2 (11) 33.1 **(12) 29.0**

○ (성별) 남녀 취업자 동반 증가, 여성 고용률(15-64세, 58.4%)은 12월 기준 역대 최고

* 남성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23.7 (7) 20.5 (8) 21.3 (9) 26.7 (10) 27.4 (11) 28.6 **(12) 41.1**

* 여성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34.6 (7) 33.8 (8) 30.5 (9) 40.4 (10) 37.8 (11) 26.8 **(12) 36.2**

③ (산업) 보건복지(+17.4만명), 운수창고(+12.7만명), 교육서비스(+11.5만명) 등에서 증가, 숙박음식(+6.6만명), 예술스포츠(+3.2만명) 증가 전환

○ (서비스) 보건복지,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업종 개선 등 영향으로 10개월 연속 증가

* 서비스업 증감(만명): ('21.6) 44.2 (7) 44.0 (8) 43.6 (9) 63.3 (10) 59.1 (11) 45.8 **(12) 66.0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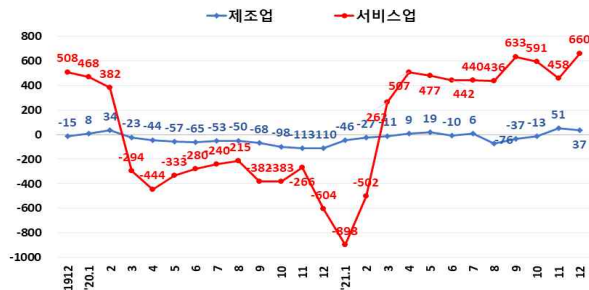
- 보건복지(+17.4만명)와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운수창고(+12.7만명), 전문과학기술(+9.2만명), 정보통신(+8.2만명) 등에서 증가 지속

- 대면서비스 관련 교육(+11.5만명) 증가 지속, 숙박음식(+6.6만명), 예술스포츠(+3.2만명) 증가 전환, 도소매(-8.0만명), 개인서비스(-2.9만명) 감소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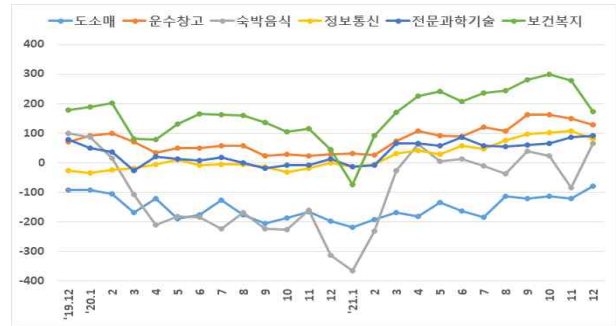
○ (제조업) 수출 증가세 지속 등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

* 제조업 증감(만명): ('21.6) -1.0 (7) 0.6 (8) -7.6 (9) -3.7 (10) -1.3 (11) 5.1 **(12) 3.7**

< 제조업, 서비스업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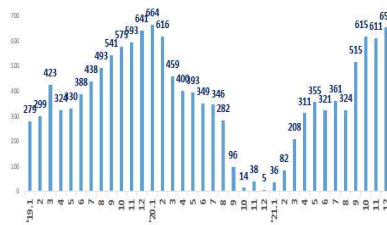
< 주요 서비스업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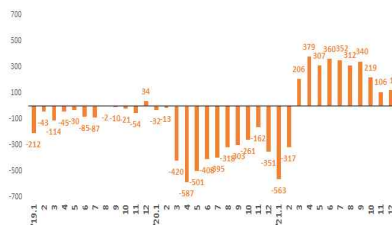
④ (중사상지위) 상용직(+65.2만명) 3개월 연속 60만명대 증가, 임시직(+11.9만명)도 증가,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(+5.3만명) 37개월 만에 증가 전환

- (상용직) 전년동월대비 65.2만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60만명대 증가
 - * 상용직 증감(만명): ('21.6) 32.1 (7) 36.1 (8) 32.4 (9) 51.5 (10) 61.5 (11) 61.1 **(12) 65.2**
 - ↳ 12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(73.0%)은 통계작성('89년) 이래 최대
- (임시·일용직) 임시직 10개월 연속 증가하나 증가폭 둔화, 일용직 감소 지속
 - * 임시일용직 증감(만명): ('21.6) 24.6 (7) 18.2 (8) 22.3 (9) 21.9 (10) 5.7 (11) -6.9 **(12) 45**
 - ↳ 임시직 증감(만명): ('21.6) 36.0 (7) 35.2 (8) 31.2 (9) 34.0 (10) 21.9 (11) 10.6 **(12) 11.9**
 - ↳ 일용직 증감(만명): ('21.6) -11.4 (7) -17.0 (8) -8.9 (9) -12.1 (10) -16.2 (11) -17.5 **(12) -7.4**
- (자영업자 등)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'18.11월(+1.5만명)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 전환,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지속
 - * 자영업자 증감(만명): ('21.6) 2.9 (7) 1.6 (8) -0.5 (9) -2.6 (10) 1.9 (11) 3.8 **(12) 8.9**
 - ↳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(만명): ('21.6) -8.4 (7) -7.1 (8) -6.1 (9) -4.8 (10) -2.6 (11) -0.4 **(12) 5.3**
 - ↳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(만명): ('21.6) 11.3 (7) 8.7 (8) 5.6 (9) 2.2 (10) 4.5 (11) 4.2 **(12) 3.6**
 - * 무급가족종사자(만명): ('21.6) -1.5 (7) -1.6 (8) -2.3 (9) -3.7 (10) -3.7 (11) -2.7 **(12) -1.3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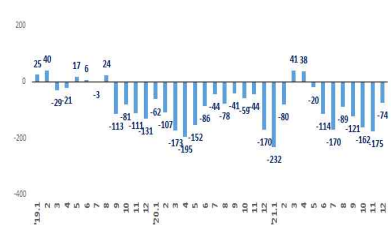
< 상용직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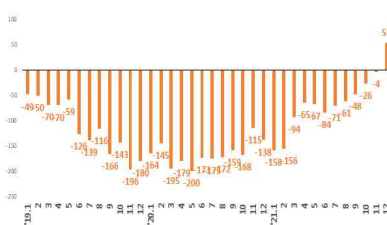
< 임시직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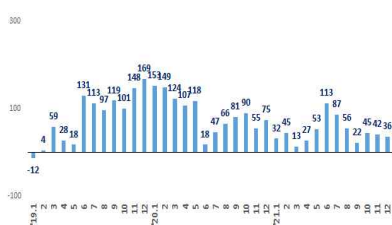
< 일용직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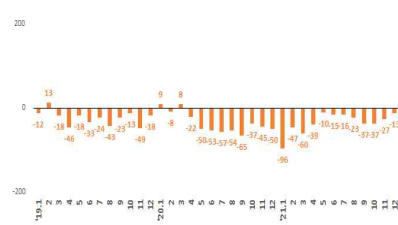
<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(천명) >



<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(천명) >



< 무급가족종사자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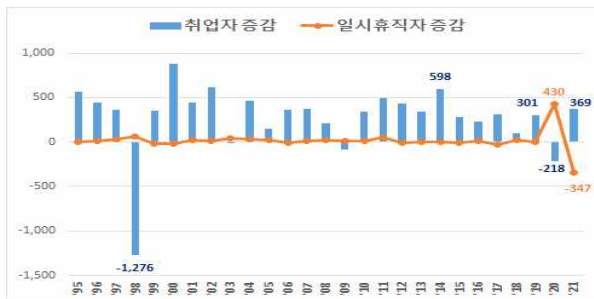
참고2

2021년 연간 고용동향 특징

① (총괄) '21년은 취업자 증가(+36.9만명), 고용률 증가(+0.6%p), 실업 감소 등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부터 건조한 회복세

- 취업자수(15세 이상)는 2,727.3만명으로 전년대비 36.9만명 증가
고용률(15~64세)은 66.5%로 0.6%p 상승
- '21년은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며, 취업자가 '14년(+59.8만명) 이후 최대 증가, 일시휴직자도 큰 폭 감소(-34.7만명)
 - * 취업자 증감(만명): ('17) 31.6 ('18) 9.7 ('19) 30.1 ('20) -21.8 **('21) 36.9**
 - * 일시휴직자 증감(만명): ('17) -3.1 ('18) 2.1 ('19) 0.3 ('20) 43.0 **('21) -34.7**
- 실업자는 103.7만명으로 7.1만명 감소, 실업률은 3.7%(-0.3%p)
- 비경활인구는 1,677만명으로 0.3만명 감소

< 취업자 및 일시휴직자 증감(천명) >



< 고용률(15~64세) 및 증감(% , %p) >



< 실업률 증감(% , %p) >



< 비경활인구 및 증감(천명) >



② (연령) 청년 중심 전연령 고용률 상승(30대는 전년대비 동일)

- * 고용률 증감('21년, %p): (15-29세) **+2.0** (30대) 0.0 (40대) +0.2 (50대) +0.8 (60세이상) +0.5
- * 실업률 증감('21년, %p): (15-29세) -1.2 (30대) -0.2 (40대) -0.1 (50대) -0.3 (60세이상) **+0.2**

- (청년) 취업자수는 '20년 크게 감소 후 '21년 증가 전환('20년 -18.3만명 → '21년 +11.5만명), 고용률 상승(44.2%, +2.0%p) 및 실업률 하락(7.8%, -1.2%p)
 - * 청년 취업자 증감(만명): ('17) -0.1 ('18) -0.3 ('19) 4.1 ('20) -18.3 **('21) 11.5**
 - ↳ 20대 취업자 증감(만명): ('17) -0.3 ('18) 3.9 ('19) 4.8 ('20) -14.6 **('21) 10.5**
 - * 청년 고용률 증감(%p, '21년): (15~29세) +2.0 (20대) +1.7 (20~24세) +2.0 (25~29세) +0.9

- (30대~40대) 30대, 40대 취업자수는 감소하였으나,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은 40대 상승, 30대는 전년 수준
 - * 30대 취업자 증감(만명): ('17) -2.9 ('18) -6.1 ('19) -5.3 ('20) -16.5 **(21) -10.7**
 - * 40대 취업자 증감(만명): ('17) -5.0 ('18) -11.7 ('19) -16.2 ('20) -15.8 **(21) -3.5**
 - * 고용률: 30대(75.3%, 0.0%p), 40대(77.3%, +0.2%p), 50대(75.1%, +0.8%p)
- (60세 이상) 취업자 증가 지속('20년 +37.5만명 → '21년 +33.0만명), 고용률(42.9%, +0.5%p) 및 실업률(3.8%, +0.2%p) 동반 상승 지속
 - * 60세이상 취업자 증감(만명): ('17) 24.2 ('18) 23.4 ('19) 37.7 ('20) 37.5 **(21) 33.0**

③ (산업) 보건복지 및 운수, 정보통신 등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, 다만, 대면 서비스업 부진 지속, 제조업 감소 지속

- (서비스업) 보건복지 및 운수, 정보통신, 전문과학 등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
 - 반면, 도소매, 숙박음식, 개인서비스, 예술스포츠 등 대면서비스업 부진 지속
 - * 서비스업 증감(만명): ('17) 20.8 ('18) 5.2 ('19) 34.8 ('20) -21.6 **(21) 29.2**
 ↳ 대면서비스업 증감(만명): ('17) 10.2 ('18) -14.7 ('19) 8.4 ('20) -44.7 **(21) -23.9**
- (제조업) '16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감소폭은 완화
 - * 제조업 증감(만명): ('17) -1.8 ('18) -5.6 ('19) -8.1 ('20) -5.3 **(21) -0.8**

④ (종사상지위) 상용직(+36.6만명)과 임시직(+15.2만명) 중심의 고용 회복, 고용원有 자영업자(-6.5만명), 일용직(-9.6만명) 감소는 지속

- (상용직) 전체 고용 증가(+36.9만명)는 상용직(+36.6만명)이 견인
 - * 상용직 증감(만명): ('17) 36.6 ('18) 34.5 ('19) 44.4 ('20) 30.5 **(21) 36.6**
 ↳ 과거 외환위기('98년) 기간에는 상용직이 가장 큰 폭 감소하였으나, 코로나19 위기에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며 상용직 비중(71.7%)은 통계작성('89년) 이래 최대
- (임시·일용) '20년 충격이 가장 컸던 임시직 증가 전환(+15.2만명), 일용직은 '18년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
 - * 임시직 증감(만명): ('17) -13.2 ('18) -14.1 ('19) -5.6 ('20) -31.3 **(21) 15.2**
 - * 일용직 증감(만명): ('17) 3.1 ('18) -5.4 ('19) -3.1 ('20) -10.1 **(21) -9.6**
- (자영업자)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,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지속
 - * 자영업자 증감(만명): ('17) 6.8 ('18) -4.4 ('19) -3.2 ('20) -7.5 **(21) -1.8**
 ↳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(만명): ('17) 2.4 ('18) 4.3 ('19) -11.4 ('20) -16.5 **(21) -6.5**
 ↳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(만명): ('17) 4.4 ('18) -8.7 ('19) 8.1 ('20) 9.0 **(21) 4.7**